

행정효율화 · 학문연구의 새 지평

교내특집 LAN 설치에 따른 효과와 전망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 행동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율의 사회에서 올바른 신속한 정보는 더 좋은 판단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처리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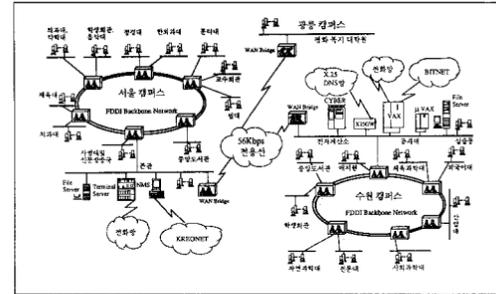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보의 보관·처리·전달 또는 생산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본교에서도 지난 8월 정보의 전달·보관·처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 통신의 일종인 근거리 종합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을 서울, 수원, 광릉 각 캠퍼스에 설치하여 교내의 모든 주권리터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그 밖의 여러 컴퓨터 관련 기기를 연결한 LAN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교수, 학생, 직원들이 각 부서 혹은 소속학과, 연구실에서 그들의 업무에 적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도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러한 LAN이란 무엇인가.

수신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LAN을 설치하게되면 캠퍼스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주권리터 및 단말기 등을 연결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원의 공유를 수행할 수 있으며, LAN을 통하여 하드웨어(Hardware)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oftware)의 공유도 함께 이루어져 신속한 정보 전달 및 경비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수 있는데 기존의 LAN 케이블 체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에는 복잡한 케이블 체계를 단순화된 케이블 체계로 실현시켜 여러 전산망이 병행해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손실이 거의 없게 된다. 더불어 LAN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단말기의 이동 및 재배치 시선로 작업이 다시 이루어져



LAN 네트워크 구성도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본교에서도 지난 8월 정보의 전달·보관·처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 통신의 일종인 근거리 종합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을 서울, 수원, 광릉 각 캠퍼스에 설치하여 교내의 모든 주권리터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그 밖의 여러 컴퓨터 관련 기기를 연결한 LAN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교수, 학생, 직원들이 각 부서 혹은 소속학과, 연구실에서 그들의 업무에 적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도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전산소로 가입신청... 교내외 각종 정보수신 가능

다. 따라서 LAN이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컴퓨터간 화일의 고속전송 및 전자우편의 전달등이 보다 손쉽고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수신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물리적 장치인 케이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아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단일화된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변경 장소에서 LAN 케이블 접속한 한 번으로 초기 설치 및 향후 단말기의 이동 및 확장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 통상적으로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컴퓨터 상호간의 접속 부분이 없으면 접속수속 통신에 심대한 차

가 준비되어야 하며 사용목적등이 분명해야 한다. 이런 것이 갖춰진 가입 신청자는 전산소 전산망 담당자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자는 소요 장비 및 가입비용을 산출하여 가입신청자에게 비용 및 설치예정일을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입신청자는 설치예정인 10일전까지 소요비용을 지불한 뒤 LAN에 연결된 컴퓨터를 책임지고 관리할 권리를 신청하여 담당자에게 통보받은 학내 전산망인 LAN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교에 LAN이 설치됨에 따라 학교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수 및 대학원생, 학부생들의 학문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본교의 LAN을 실패를 보면 중앙도서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부터 DAO CD-ROM 시스템으로 북미와 유럽지역 5백여 대학에서 대학이 수여되는 석·박사학위 논문의 초록 검색과 지시사항을 LAN을 통하여 접속하게 되므로 빠른 시간내에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곧 최신의 정보를 빠른 시간내에 접수하여 학문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말하며 이로써 보다 신속한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AN의 설치에 따른 학문적 성과와 연계되어 갈 수 있다.

그러나 16일이라는 막대한 자본과 노력이 투자되어 설치된 본교의 LAN이 아직도 시험의 단계에 있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교 당국에서는 사용자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아울러 사용자 그들간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민간의 준비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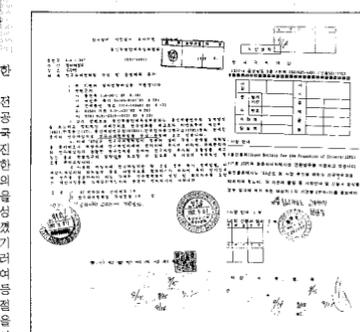
(서동국 기자)

기획추진 수원 우편물 관리체제의 문제점 책임있는 전담인 구성 시급

우편업무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어떠한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 이에 본교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학내 우편물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권지정 기자)

전담직원이 없고, 수신인에 대한 평가 불분명할 때는 아래용이 많다. 또한 그 원인으로 몇몇 교수의 과잉신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서류의 발·수신인 찾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교수나 직원의 불만



은 하루에 한번 신강우체국에서 오전 10시 30분 본관 총무과로 배달된다. 총무과는 이 우편물을 오전 11시까지 6개 단대 우편물과 각 사무국의 우편물을 분류하고, 총무과내 소포의 경우는 총무과 내의 우편함에 정리하고, 일반 우편물은 본관 수위실에서 각 단대로 전달한다. 이런 절차로 각 단대로 전달된 우편물은 각 단대 교무과에서 사물에 의해 다시 과별로 분류되고, 오후 1-2시경에는 각 과 우편함에 정리되며, 교수의 우편물은 교수에게 실의 우편함에 모아진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우편물의 수수는 길게잡아 이물이 거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수원캠퍼스로 바로 발송되는 외부 우편물은 위의 설명처럼 신강우체국을 통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캠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편물이나 캠퍼스 간 행정서류는 한 번 운행하는 교직원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즉, 오전엔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고 수원에서는 결국 단순한 행정 서류는 당일 수수가 되기 위해서는 버스가 도착하고 떠나기 전에 한두시간의 여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의 서류처리

(이강숙 기자)



개개인에게 사랑 베푸는 교사 퇴교파

대원남고 교사 한상규(국문·87졸) 동문을 만나

자신이 수험준비를 할 때는 본교시에 대비하기 위해 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도 적잖게 읽었다는 한동문은 "요즘은 수험 공부에 다이제스트화되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지 몰라도 읽어야 하는 책이 너무 많다. 특히 '이성적인 교육자상'을 말하는 한상규(국문·87졸) 동문은 대원남고교총회로 국어교사로 야간부 고3학급을 지도하고 있다.

심심때 저를 따르던 학생들의 해박한 모습을 보면 마음은 굳혔었고"라고 말하는 한동문은 "하지만 직접 교육현장에 부딪히면 교사로서의 현실이 생각되어 버린다"고 덧붙인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육의 분위기가 미성숙되어 비합리한 교사가 존재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전혀 변하지 않는 입시제도속에서 교사로서 별로 노

고 생각하며, 그들의 이념적 진보성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지만 교육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해직시키고, '유명'한 교사'를 하는 것에 아직 교직에 남으려는 사람으로서 무력감을 느끼며 해직교사의 복직



에 많이 남는다는 한상규동문은 87년 결혼에 현재 3살된 아들 재희군을 두고 있다.

대학시절 지편사를 맡은 편에 있었던 '농촌'이란 소수자를 주로 찾았는데 학교에 와보니 변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으며 영모습이 사라진 학교일 종정을 아쉬워한다.

"결혼한 생활인의 현실으로서 겪어보 사회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거니와, 학생엔 사회는 어떤 것,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직접 경험한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신제가치국평화'라는 말이 의미할 조금은 깨닫게 되었다고"라고 활개요"라는 말이 자신이 겪은 사회를 이야기하며 감을 끝맺는다.

(장영현 기자)

“경희 한마음”

경희 한마음

“경희 한마음”

— 경희체육진흥기금 마련 공연

일시: 1992. 10. 2. 금·오후6시
 장소: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주최: 경희대학교 한마음 추진위원회
 후원: 총학생회, 고향재단, 총동창회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경희 정신”
경희인으로서 경희의 자존심을 가져보았습니까?

“경희자존심”과
“더불어 하나됨”을 위하여
“경희”는 동체
자랑스런 고향의 표효를...

한마당이
‘경희 사랑’ 아래 모였습니다.
‘경희한마음’ 이름을 통해